

24장 - 왕 되신 주

- (1)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 (2)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 (3)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382장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 (2)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 (3)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 (4)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 담당

9/26(화)	9/27(수)	9/28(목)	9/29(금)	9/30(토)	10/2(월)
김춘식 안수집사	정호성 안수집사	추석 명절			조병현 안수집사

2023년 9월 25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4장	다함께
기도	이태호 안수집사
성경봉독 이사야 17:12~14	인도자
찬양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새벽찬양대
설교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지리라』	엄재광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함께
찬송 382장	다함께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이사야 17:12~14 >

- 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물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 13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 14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 참고구절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3년 9월 25일(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 날개 그늘아래 편안히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새아침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거룩히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소리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욕심과 이기주의로 얼룩지고 나누어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어 주의 영광을 높이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며, 속히 주의 거룩한 교회가 복녘에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136년 동안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전파와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문화와 향기를 전파함에 더욱 집중하며 앞장서는 새문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활동 중인 의료선교팀과 동행하사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펼쳐주시며, 영혼의 치료도 허락하사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안식년 기간 중에 계신 담임목사님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